

16/08/14(주) 주일예배 / 제목 :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계 2:8~11) p. 400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네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서머나 교회는 심한 박해 속에서도 처음 사랑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켰습니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에게서 책망 받을 일은 하지 않고 칭찬 받을 일만 해야 합니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합니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니다.

본론 /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머나' 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니다. 그래야만이 서머나 교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니다. '서머나'라는 도시 이름이 현재의 이즈미르로 이름이 바뀐 것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터어키 제국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니다.

서머나(이즈미르)는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에 이어 터키 제 3의 도시로서 인구 5백만에 육박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니다. 현재의 이즈미르는 에게해 연안의 천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터키의 모든 수출입 물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과 경제의 도시로 발전하던 항구도시입니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리스의 태양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뿐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여러 곳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지금도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제 3차 교회 설립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한 결과,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행19:9~10).

(행19:9~10)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 두 해 동안 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서머나 교회도 바로 이때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세워졌을 것이고, 나중에 2세기 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알려진 폴리갑(69-155년)이 감독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이후 이곳에 이주하여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훼방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 다(계2:9). 그러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후 2 세기 전반에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고난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를 주는 이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었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서기 168년에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폴리갑은 죽기 전 폴리갑을 존경했던 지방 총독이 그를 살리고자, 그리스도를 한 번만 욕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말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모독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폴리갑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폴리갑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당했는데, 폴리갑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았고 순교도 했습니다.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9절, 10절상)

9절을 보십시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하였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직업도, 재산도, 사회적 명예도,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궁핍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먹는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고 장사를 못하게 되고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차별 대우를 받아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방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근거없이 명예를 떨어뜨리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훼방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 당시 황제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일터를 박탈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진출이 막혔고, 매매가 금지돼 생필품을 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리들의 목인 아래 기독교인의 재산을 공공연하게 약탈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하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으나,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시는 예수님을 소유했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는 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이 있었습니다. (9절 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들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서머나로 이주해 온 유대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신들을 선민으로 자처하였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로 이주해 올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서머나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하는 것을 식인종이라고 비판하는 등 온갖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0절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은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위 말라”는 말씀은 잘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그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그들도 변치 않고 한결 같은 사랑으로 헌신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순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화형으로, 참수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지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시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목숨까지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 가지는 다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환란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과를 기대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환란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3.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0하~11절)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하)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라는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은 배신하거나 변절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Faithful)”이란 말과 “믿음(Faith)”이란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하신 것입니다.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고전9:25), 자랑의 면류관(살전2:19), 의의 면류관

(딤후4:8), 영광의 면류관(벧전5:4),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계2:10)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계 2:10). 순교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은 올림픽과 같이 운동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어주던 승리의 관(스테파노스)입니다.

운동경기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은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소위 월계관인데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시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도 불사하고 환난을 이겨낸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충성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희생 없는 충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은 세상 사람들은 편히 쉬는 날입니다. 육신의 안식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주말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으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을 합니다. 참으로 순수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숨은 희생적 충성이 있었기에 교회가 운영되며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은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고전 15:58)**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과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는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할 때나 환란의 때에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맞으면 반짝 열심을 내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욕을 먹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으면 직분이고 책임이고 다 내팽개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터어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땅굴 속에 들어가 살다가 죽은 ‘**카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햇빛도 없고 습기 찬 그 지하 동굴에서 처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동굴 한쪽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그 생활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죽은 순교자가 175만~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철목사님도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기를 수없이 하고, 손톱 발톱이 빠질 정도로 대나무 꼬챙이로 찔러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 추운겨울 옥사했습니다. 신사 앞에 머리 한번만

속이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죽기까지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한결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귀'는 신령한 귀로써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신령한 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편견과 아집과 교만으로 우리들의 귀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과 순종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11-15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8절에도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했습니다. 즉,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가는 일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충성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충성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나의 충성으로 장차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단 한 번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특징은 연습할 기회 없이 매일매일 본선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주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요약정리 /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1.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8절)
2.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9, 10절상)
3.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0절하, 11절)